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황은희** · 신수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첨단 기술의 도입과 접목 등으로 급변하는 의료 영역에서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역시 그 역할과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활동 과정,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를 의미하며, 간호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사물, 장면,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견지를 형성하므로 간호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이 될 수 있다(Kwon & Yeun, 2007).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업무수행 능력과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나 이직률이 감소되고, 업무 수행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형성되어 효과적인 간호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Han, Kim, & Yun, 2008).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 16.8%보다 높은 33.6%의 신규간호사 이직률

은(Kim, Chung, Kim, Lee, & Hwang, 2013) 여러 측면의 영향 요인이 있겠지만,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부정적이거나 아직 확립되지 못한 요인도 그 중 한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개발이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이러한 간호에 대해 간호사가 만족함과 동시에 직업적 만족을 얻으며,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진가를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것이라는(Park, Kwon, & Choi, 1995)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시기의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 시기의 전공 이론과 실습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며, 간호대학생 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임상간호사의 전문직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Kim, 1995),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이에 대한 연구, 고찰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 혹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2015)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ssj1119@ewha.ac.kr)

• Received: 18 January 2017 • Revised: 31 March 2017 • Accepted: 13 April 2017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hin, Sujin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2726 Fax: 82-2-3277-2850 E-mail: ssj1119@ewha.ac.kr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Ahn & Song, 2015), 교과 만족도(Kwon & Yeun, 2007),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무력감(Hong & Park, 2014),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Lee, 2016) 등으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학과적응과 대학생활 능력의 효과적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학과의 적응능력 향상은 물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게 하며(Oh, 2014),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Cho & Kim, 2016) 상호 관련성이 매우 깊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으로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의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되고 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Park, 2015). 무엇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고(Choi & Jung, 2015),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Kim, 2016) 간호대학생이 임상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낸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특히 좌절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 및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고 낮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진다(Block & Block, 1980). 간호학과 학생은 타 전공 학생에 비해 많은 전공 교과목과 임상실습, 과중한 교육과정 등으로 쉽게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고 불만족을 느끼게 되며 이는 대학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Kim & Lee, 2014), 전공만족도에 직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관과 학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Lim, 2014; Cho & Kim, 2016).

간호전문직관은 비판적 사고 능력, 리더십과 함께 간호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기본 자질로서 간호교육 인증평가 시 교육성과의 측정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Park, 2015).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 파악을 통해 간호교육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임의 표출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보조원 1인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후 연구보조원이 각 학년별 단체 SNS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설문 목적과 소요 예상 시간, 답례품 등)를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을 학년별로 선착순 30명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I 지역의 W 대학에서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시간은 15분 가량 소요되었다. 표본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9.2를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 예측변인을 3개라고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99명이었다. 이에 총 120명의 학생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114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11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on과 Ahn (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 29문항에서 간호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험이 없어 본 도구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세 개의 문항 즉,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사랑을 의미하는 동양철학적인 인(仁)의 개념으로 행해져야 한다.', '한국에 적합한 특별한 간호이론이 발전된다면 간호는 외국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간호는 병원의 다른 전문인처럼 간호의 전문성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를 제외하여 26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3~.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16이었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한 Brakamp, Wise와 Hengstler (1979)의 도구를 Kim과 Ha (2000)가 수정·보완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 도구 중 Lee (2004)가 전공만족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13

이었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 (2002)가 개발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Kim과 Han (200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0~.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35이었다.

4) 자아탄력성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 맥락이 요구하는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Yu, Hong과 Choe (2004)가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92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특성 및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검정,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방법으로는 세 개 이상의 다중비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Tukey post hoc 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 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익명성 보장 및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불이익이 없음을 대해 설명하고 서면 사전동의서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을 배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자가 92.7%였고, 1학년이 23.6%, 2학년 24.5%, 3학

년 24.5%, 4학년 27.3%였다. 경제적 상태는 상이 23.6%, 중이 67.3%, 하가 9.1%로 나타났고, 주관적으로 인지한 성격유형은 내성적 성격유형이 57.3%, 외향적 성격유형이 42.7%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로 적성과 흥미가 49.1%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의 권유가 20.0%, 취업률을 고려한 경우가 19.1%였다. 졸업 후 첫 희망진로는 81.8%가 의료기관으로 답하였고, 공무원이 11.8%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3.6%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6.4%,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중 평균 3.91±0.45점이었고 하부 영역 중 간호의 전문성이 4.06±0.56점으로 가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Characteristics	n	%
Age(years, Mean±SD)	22.02±2.16	
Gender	Male	8 (7.3)
	Female	102 (92.7)
School year	1st	26 (23.6)
	2nd	27 (24.5)
	3rd	27 (24.5)
	4th	30 (27.3)
Economic status	Good	26 (23.6)
	Moderate	74 (67.3)
	Bad	10 (9.1)
Perceived personality traits	Introvert	63 (57.3)
	Extrovert	47 (42.7)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54 (49.1)
	Recommendation of others	22 (20.0)
	Employment guarantee	21 (19.1)
	High school record	8 (7.3)
	Nurse's professionalism	5 (4.5)
Plans for after graduation	Hospital	90 (81.8)
	Civil servant	13 (11.8)
	School nurse	2 (1.8)
	Industrial nurse/Others	5 (4.5)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59 (53.6)
	Moderate	40 (36.4)
	Bad	11 (10.0)

높았으며, 사회적 인식이 3.56±0.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88±0.44점,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중 평균 3.69±0.49점이었고,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 중 평균 2.95±0.38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3과 같으며, 정규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변수인 성별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비모수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등분산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졸업 후 진로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졸업 후 보건의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보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Self Leadership and Ego-resilience (N=110)

Factors	Min	Max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2.80	5.00	3.91	0.4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2.78	5.00	4.04	0.50
Social awareness	2.63	5.00	3.56	0.56
Professionalism of nursing	2.75	5.00	4.06	0.56
Roles of nursing service	3.00	5.00	4.01	0.54
Originality of nursing	2.50	5.00	3.88	0.70
Major satisfaction	2.67	4.94	3.88	0.44
Self leadership	2.20	4.69	3.69	0.49
Ego-resilience	2.07	4.00	2.95	0.38

Table 3. Factors related to Nursing Professionalism (N=110)

Factors	Categories	Mean±SD	U/F/ χ^2	p	Tukey
Gender [†]	Male	3.86±0.24	430.50	.796	
	Female	3.91±0.46			
School year	1st	3.97±0.51	0.48	.695	
	2nd	3.90±0.45			
	3rd	3.83±0.41			
	4th	3.93±0.45			
Economic status	Good	3.94±0.42	1.42	.247	
	Moderate	3.87±0.48			
	Bad	4.12±0.19			
Perceived personality traits	Introvert	3.90±0.48	-0.15	.882	
	Extrovert	3.92±0.42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3.95±0.44	0.83	.508	
	Recommendation of others	3.98±0.48			
	Employment guarantee	3.82±0.51			
	High school record	3.77±0.33			
	Nurse's professionalism	3.75±0.21			
Plans for after graduation [‡]	Hospital ^a	3.95±0.45	9.96	.019	c>b
	Civil servant ^b	3.62±0.38			
	School nurse ^c	4.49±0.54			
	Industrial nurse/Others ^d	3.73±0.30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a	4.01±0.41	4.63	.012	a>b
	Moderate ^b	3.74±0.67			
	Bad ^c	3.99±0.47			

[†] Mann-Whitney test, [‡] Kruskal-Wallis test

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chi^2=9.96, p=.019$),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F=4.63, p=.012$).

4.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66, p<.001; r=0.50, p<.001; r=0.23, p=.016$), 이 중 전공만족도의 상관계수가 0.66으로 상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이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0.59, p<.001; r=0.21, p=.031$), 셀프리더십과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5, p<.001$).

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 잔차모형이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090~3.615로 모든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졸업 후 진로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보정하기 위해 회귀분석 예측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beta=.625, p<.001$)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간호전문직관을 50.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964,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 3.91점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한 Cho와 Lee (2015) 연구에서의 3.93점, Jun과 Lee (2016) 연구에서의 3.8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Cho와 Kim (2014) 연구에서는 3.59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르게 분포한 반면 Cho와 Kim (2014)의 연구는 1, 2학년 학생이 3, 4학년 학생보다 더 많아 이로 인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 2학년 학생은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간호전문성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 인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 시기의 전공 이론과 실습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Table 4. Correlation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Self Leadership and Ego-resilience (N=110)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Self leadership	Ego-resilience
	r(p)		
Nursing professionalism	.66(<.001)	.50(<.001)	.23(.016)
Major satisfaction		.59(<.001)	.21(.031)
Self leadership			.35(<.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N=11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202	0.377			
Major satisfaction	0.636	0.092	.625	6.873	<.001
Self leadership	0.084	0.082	.091	1.022	.309
Ego-resilience	0.000	0.087	.000	-0.001	.999
Adjusted R ² = .506, F=14.964 p<.001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특성을 가졌다는 점에서(Kim, 1995) 본 연구 결과의 차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영역 중 간호의 전문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인식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Kwon과 Yeun (2007), Cho와 Lee (2015) 등의 여러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간호계 내부적으로 간호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와 간호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반면에 간호를 전문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외적 요인의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간호계 내의 자성과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임상적인 전문 영역을 넘어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전반적인 사회영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책임있는 전문인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Lim & Jo, 2016).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88점으로, 이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Oh (2014) 연구의 3.82점, Cho와 Kim (2016) 연구의 3.7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Kim과 Lee (2014)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3년제 대학 재학생이 3.77점으로 4년제 대학 재학생의 3.49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학과적응과 대학생활 능력의 효과적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이다(Oh, 2014). 3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은 많은 학과와 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전공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중 평균 3.69점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한 Kim과 Hwang (2016) 연구에서의 3.51점, 다른 도구를 이용한 Park (2015) 연구에서의 3.44점(5점 만점)보다 높고, 다른 도구를 이용한 Kim (2016) 연구에서의 3.04점(4점 만점)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3.80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각 연구마다의 대상자 선정에 의한 것으로써 Kim (2016)의 연구는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다른 연구는 1, 2학년 학생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

점 중 평균 2.95점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ae (2016) 연구에서의 2.73점, 도구는 다르지만 Lee와 Park (2013) 연구에서의 3.44점(5점 만점)을 4점 만점으로 환산한 2.7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과 Yoon (2013) 연구에서의 2.74점(4점 만점)보다도 높게 나타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졸업 후 보건교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대상자가 보통인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Seong, Bang과 Kim (2012)의 연구에서 졸업 후 종합병원 혹은 그 외 기관 취업을 원하는지에 따라 간호전문직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 후 취업 기관을 보다 세분화하여 비교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의료기관 취업을 위한 반면 1.8%의 소수의 학생만이 보건교사를 희망하여 졸업 후 진로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표본수를 늘여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Cho와 Lee (2015)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은 대상자가 보통인 대상자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Ahn & Song, 2015; Cho et al., 2011; Kim, 2016; Kim & Hwang, 2016; Kim & Lee, 2014; Park, 2015; Park & Oh, 2014)와 일치한다. 간호전문직관은 직무만족을 높이고 효과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Han, Kim, & Yun, 2008) 대학 때부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는 선행 연구와 일맥상통한다(Cho & Kim,

2016). 그러나 Lee (2016)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에 대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2014),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선행 연구 결과(Ahn & Song, 2015)를 관련시켜 볼 때,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선행 연구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요인뿐만 아니라 매개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예측요인(Seong, Bang, & Kim, 2012)으로도 확인된 바, 진로 결정과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과 같이 진로 관련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대학 과정 동안 그리고 졸업 후 임상에서의 직업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학과의 교과 및 교과 외 프로그램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고, 간호전문직관은 졸업 후 진로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건강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만족할 수 있도록 1학년 입학 시점부터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인 전

공 및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간호전문직관 함양에 있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간호전문직관이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학년 진급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 분야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교과 외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적용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hn, T. S., & Song, Y. A. (2015).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1(1), 10-17. <http://dx.doi.org/10.14370/jewnr.2015.21.1.10>
- Block, J., & Block, J.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Chae, M. O.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95>
- Cho, H. H., & Kim, N. H. (2014). Relationships among

-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48-557.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548>
- Cho, H. J., & Lee, J. Y. (2015). A study 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498-8508.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498>
- Cho, J. A., & Kim, J. S. (2016).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87-595.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87>
- Cho, H., Ko, Y. A., Kang, Y. S., & Lee, G. (2011).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in the freshmen of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1), 107-117.
- Choi, Y. H., & Jung, C. S. (2015).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04-4613.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04>
- Han, S. S., Kim, M. H., & Yun, E. K.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Hong, S. S., & Park, M. J. (2014).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2), 369-377.
- Houghton, J. D., &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 672-691. <http://dx.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Jun, W-H., & Lee, K-L. (2016).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the happiness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3), 434-444.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3.434>
- Kim, B. H., Chung, B. Y., Kim, J. K., Lee, A. Y., & Hwang, S. Y. (2013).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6), 701-711. <http://dx.doi.org/10.7475/kjan.2012.24.6.701>
- Kim, D. J., & Lee, J. S.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Kim, E. H. (2016).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4(1), 532-541. <http://dx.doi.org/10.15205/kschs.2016.4.1.532>
- Kim, K. H., & Ha, J.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Kim, K. H., & Hwang, E. H. (2016).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436-445.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36>

- Kim, Y. R. (1995).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 169-181.
- Kwon, Y. M., & Yeun, E. J. (2007).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3), 285-292.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H. (2016).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6(2), 29-38.
- Lee, E. K., & Park, J. A. (2013).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93-303.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 Lim, J. H. (2014).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4), 2273-2284.
- Lim, J. Y., & Yoon, G. J. (2013).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schoo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3), 113-130.
- Lim, K. M., & Jo, E. J.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56>
- Oh, J. 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73>
- Park, H. J.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Park, H. J., & Oh, J. W.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417-426.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Park, J. O., Kwon, H. J., & Choi, K. S. (1995). A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s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Chungang Journal of Medicine*, 20(1), 79-87.
- Seong, J. A., Bang, S. Y., & Kim, S. Y. (2012).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2), 29-38.
- Shin, Y. K., Kim, M. S., & Han, Y. S.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 Psychology*, 6(3), 377-393. <http://dx.doi.org/10.16983/kjisp.2009.6.3.377>
-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Yu, S. G., Hong, S. H., & Choe, B. Y. (200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93-408.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Hwang, Eunhee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Shin, Sujin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self leadership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110 nursing students recruited from one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the SPSS/SIN 23.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nursing students have levels of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self leadership and ego-resilience that are higher than the median.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plans for after gradua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Nursing professionalism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jor satisfaction, self leadership and ego-resilience. **Conclusion:** Major satisfac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predicting greater nursing professionalism. Thus,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program for enha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Self leadership, Ego-resilience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6